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피인용문의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강 정 희*

차 례

- | | |
|-------------------|-----------------|
| I. 서론 | 상위 전달동사 특성과의 관계 |
| II. 자료개관 | V. 인용보문자의 문법기능 |
| III. 인용문의 통사론적 고찰 | VI. 결론 |
| IV. 내포문의 문장어미와 | 참고문헌 |

I. 서 론

인간행위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독특한 것의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이 언어라는 도구로서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교환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본질은 의사전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의사전달 방식은 동일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간의 직접적인 의사교환과 화자가 원화자(The original speaker)의 말을 인용 전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후자의 경우, 대개는 이미 발화된 말을 전달하게 되므로 담화가 형성되려면 최소한 전달자(reporter), 전달동사(reporting, Communicative verb), 그리고 원화자의 발화(Utterance of the original speaker)를 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은 다시 문장 구성상의 주어(화자)—전달동사로 이루어지는 전달문과 원화자의 발화체인 피인용문(quoted, reported sentence)으로 나뉘게 된다.

이 피인용문이 전달문에 내포되는 과정을 인용문의 보문화과정(completion)이라고 하고 구절표지에서 전달문과 피인용문은 상위문과 하위문

* 崇田大 전임강사

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피인용문은 주로 상위전달문의 동사구에 지배되는 직접목적어 위치에 내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¹⁾.

한편 내포문의 종결어미는 전달자가 전달할 당시 심적태도에 따라서 원화자의 발화형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직접 인용과 전달자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단 걸름(filtering) 후에 전달하는 간접인용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1) A→B: “함께 가십시오.”

B→C: ㉠ A가 나에게 “함께 가십시오.”라고 제안하더군요.

㉡ A가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2) A→B: “언제 가지?”

B→C: ㉢ A가 나에게 “언제 가지?” 하고 물더군요

㉣ A가 나에게 언제 가느냐고 물더군요

의 ㉠과 ㉡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의 경우에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변동이 생긴다. 이와 같은 언어현상에 대해서 J. R. Ross의 이행문 이론을 국어에 도입, 적용한 이홍배(1970)는 내포된 문장어미는 상위문의 이행동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므로 변형과정에서 삽입된다고 하였지만 남기십(1973)은 심층구조, 즉 구절구조에 이미 존재하던 서법어미가 간접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장어미의 중화현상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에 임해서 제주 방언의 인용보문구조의 내포문의 종결어미와 상위 전달동사간의 관계, 그리고 피인용문이 전달문에 내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라고’와 ‘—고’에 대응하는 인용보문자(quotative complementizer)의 존재여부들 파악하고, 단일 존재한다면 그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 그 주목적을 둔다.

1) 내포문의 통사적 위치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은 「冠獻語文研究」, 第四輯, 서울대, pp.358~59와 남기십(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韓國學研究所, pp.31~32 참조.

II. 자료 개관

본 장에서 제시되는 방언자료는 본 방언의 언중들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구어 (spoken language)체를 중심으로 한다.

현대국어를 다루는 모든 연구에서 예문으로 제시되는 자료들이 그래야 하듯이 방언 자료들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언어, 즉 자연스러운 발화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언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할 때야 비로써 토박이 화자들의 언어직관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도 방언의 인용문에 대한 통사론적인 고찰에 앞서서 인용문의 사용장면을 예문들을 중심으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론 전개상 우선 종결어미의 유형²⁾에 따라서

1. 1) 원화자의 발화체
 - 2) 1)에 대한 직접인용 전달방식
 2. 1) 원화자의 발화체
 - 2) 1)에 대한 간접인용 전달방식
- 순으로 제시한다.

A. 직접인용문

표준어에서는 피인용문이 전달자에 의해서 직접인용되거나 전달될 때에는 원화자의 발화형식이 원형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는 인용조사가 ‘-(이)라고’ 인데 이러한 규칙이 본도 방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2) 어말어미 (final ending)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체들이 주된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문장어미 형태소들은 玄平孝(1974), 「濟州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박사학위논문의 분류를 기본으로 했으며 그의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사용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우선으로 했다.

1) 서술형

- ① A→B: “느 성안티 육든는다.”(너 형한테 육먹는다.)
 C→D: ㉠ A가 B라 “느 성안티 육든는다.”하여부난
 ㉡ A가 B신디 “느 성안티 육든는덴” 라벳져
- ② A→B: “지주 사름들은 바당잇 피길 흥영 낚읍네다.”
 (제주 사름들은 바닷고기를 많이 낚읍니다.)
 C→D: ㉠ A가 B신디레 “지주 사름들은 바당잇 피길 흥영 낚읍네다.” 르므영...
 ㉡ A가 B신디 “지주 사름들은 바당잇 피길 흥영 낚읍네덴” 라신디.
- ③ A→B: “오늘 처낙 노을 불쿠다.”(오늘 저녁엔 파도가 일겠읍니다.)
 C→D: ㉠ A가 B신디 “오늘 처낙” 노을 불쿠다” 하여라만...
 ㉡ A가 B안티 “오늘 처낙 노을 불쿠덴.” 하여라만...
- ④ A→B: “김멘장 충의가 기특후우다.”
 (金面長의 忠義가 기특합니다.)
 A→C: ㉠ 나가 B안티 “김멘장 충의가 기특후우다.”하여십주
 ㉡ 나가 B신디 “김멘장 충의가 기특후우덴” 라십주.
- ⑤ A→B: “가인 잘도 잠서라.”(그 아이는 잘도 자고 있더라.)
 B→C: ㉠ A가 나안틴 “가인 잘도 잠서라.” 흥명서도...
 ㉡ A가 나라 “가인 잘도 잠서랜.” 라주마는...
- ⑥ A→B: “나도 가키여”(나도 가겠어.)
 A→D: ㉠ 나가 B신디 “나도 가키여” 흥연 신디...
 ㉡ 나가 B안티 “나도 가키엔.” 했쥬.
- ⑦ A→B: “피기 흥명 잡았쥬.”
 A→D: ㉠ 나가 B신디 “피기 흥영 잡았쥬”하여부난...
 ㉡ 나가 B안티 “피기 흥영 잡았젠.” 라부난...
- ⑧ A→B: “나가 봉가십쥬.”(내가 좃었읍지요.)
 A→C: ㉠ 나가 B안티 “나가 봉가십쥬.”흥명...

- ㉠ 나가 B안티 “나가 불가십쥌.”햏연 보난 ……
- ⑨ A→B: “너 어멍신디 욱든나.”
 B→C: ㉠ A가 날ㄱ라 “너 어멍신디 욱든넌.” 햏여라만…
 A→D: ㉠ 나가 B안티 “너 어멍신디 욱든나.”햏여도
 ㉠ 나가 B안티 “너 어멍신디 욱든넌.”햏여도
- ⑩ A→B: “아방 용십내매.”(아버지가 화를 내실 것이다.)
 A→C: ㉠ 나가 B신디 “아방 용십내매.”햏여도…
 ㉠ “나는 B신디 “아망 용십내넌.”햏여도…
- ⑪ A→B: “가이 잘 살암선께.”(그 아이는 잘 살고 있더라.)
 B→C: ㉠ A가 날ㄱ라 “가이 잘 살암서러”햏여쭈마는,
 ㉠ A가 날ㄱ라 “가이 잘 살암서넌”햏여쭈마는,
- ⑫ A→B: “그 할망 죽어시넌.”(그 할머니는 죽었잖니.)
 A→C: ㉠ 나가 Bㄱ라라 “그 할망 죽어시넌.”햏연,
 ㉠ 나가 B안티 “그 할망 죽어시넌.”햏연 보난,
 C→D: ㉠ A가 B신디레 “그 할망 죽어시넌” 햏멍
 ㉠ A가 B신디 “그 할망 죽어시넌.”햏여쭈

이상의 예문들에서 특징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첫째, 표준어의 직접인용
 보문자 ‘—(이)라고’가 전혀 보이지 않고 둘째,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들의
 형태(form)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식(㉠형)과 달라진 형식(㉠형)이 존재하고
 셋째, ⑥—⑫에서처럼 의도법의 /—ㄱ/—와 /—ㅈ—/와 배합되는 문장어미
 를 가진 발화체는 원화자 자신이 전달자일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다음에 위와 같은 언어 사실들에서 특히 ㉠형의 종결어미들의 변화가 의
 문, 청유, 명령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2) 의문형

⑬ A→B: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파?”

A→D: ㉠ 나가 B안티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파?” 항여신디,

㉡ 나가 B신디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쎈.” 항여신디,

B→D: ㉠ A가 날ㄱ라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파?” 항여라만,

㉡ A가 나신디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쎈?” 들었쥬마는,

C→D: ㉠ A가 B안티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파?” 항여신디,

㉡ A가 B안티 “이거 어드레 가는 배우쎈.” 들어수다만…

⑭ A→B: “어느제 가쿠가?” (언제 가겠읍니까?)

⑮ A→B: “오늘 낮이 무시저 먹읍데가?”

⑯ A→B: “어떻 살아절수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상의 ⑭—⑯도 ⑬에서 제시한 표현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형의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가(—가, —파) /가 /—젠(—쎈) /으로 바뀌는 점이다.

그러나

⑰ A→B: “어떻 오란고?” (어떻게 왔는고?)

C→D: ㉠ A가 B안티 “어떻 오란고?” 항명…

㉡ A가 B안티 “어떻 오란곤? 항여십쥬.

⑱ A→B: “어떻 오란디?”

C→D: ㉠ A가 B안티 “어떻 오란디?” 항난,

㉡ A가 B안티 “어떤 오란딘?” 들연,

⑲ A→B: “어떻 흘코?”³⁾

B→C: ㉠ A가 날ㄱ라 “어떻 흘코?” 항여라.

㉡ A가 날ㄱ라 “어떻 흘콘?” 항여라.

3) 이와 유사한 발화형식으로

① “어떻 항티?”

② “어떻 흘쿠?”가 존재하는데 ②의 /—쿠/은 /—코/의 변이형태이며 —니이 결합되어도 ①② 모두 형태 음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 ⑳ A→B: “가이 무사 올업시니?”(그 아이는 왜 울고 있니?)
 B→C: ㉠ A가 나안티 “가이 무사 올업시니?”하명,
 ㉡ A가 나안티 “가이 무사 올업시닌?” 들어라.
- ㉑ A→B: “무시거 먹을티?4)”
 C→D: ㉠ A가 B안티 “무시거 먹을티?”하여수께.
 ㉡ A가 B실디케 “무시거 먹을틴?”하여라.
- ㉒ A→B: “어멍 개꼐디 가지냐?”(어머니 바닷가에 갔느냐?)
 A→C: ㉠가 B신디 “어멍 개꼐디 가지넨?” 들어도,
 C→D: ㉠ A가 B신디테 “어멍 개꼐디 가지냐?”하명…
 ㉡ A가 B신디 “어멍 개꼐디 가지넨?” 들어도,

이상의 예들에서 거듭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서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용보문자는 보이지 않고 다만 ㉠형에서 ‘-ㄴ’이 결합된 의문형 어미들 중 형태음소 변동이 생기는 부류들과 생기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상위 전달 동다 ‘묻다’의 자리에 ‘듣다(聞)’가 온다는 점인데, 본도 방언의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문장들

- 1) 아방신디 강 들얼 오라.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 2) 가이 무시걸 들얼 가수까?
 (그 아이 무엇을 묻고 갔읍니다?)
- 3) 그걸랑 나신디 들읍써.
 (그것은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와같이 ‘묻다’라는 어휘항목 대신에 ‘듣다’를 사용하는 언어사실에서 본도

4) 종결어미가 /-다/로 끝나는 형태소는 /-디+/-아/로 분석이 되는데 의문형 종결어미 /-아/로 끝나는 계열은 직접 인용 보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리다/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언중들의 언어의식 속에는 질문자가 청자에게 질문할때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발화자는 자신의 질문 행위보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심층심리와 아울러 동시에 질문은 대답을 반드시 전제한다는 화자와 청자간의 필연적인 양방향통보기능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답을 필연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묻는’ 언어행위 안에는 이미 상대방의 대답을 ‘듣는’ 상태가 함의(entailment)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묻다’ 대신에 ‘듣다’를 의문동사로 사용하는 본도 방언의 발화수준에서 필자는 그 어떤형의 문장에서보다도 의문형의 문장이 양방향 통보기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추출할 수 있었다.

3) 청유형⁵⁾

㉓ A→B: “계전 산이 올랑 강 보게.”

A→C: ㉑ 나가 B안티 “계전 산이 올랑 강 보게.”흐난,

㉒ 나가 B안티 “계전 산이 올랑 강 보게.”흐연,

C→D: ㉑ A가 B안티 “계전 산이 올랑 강 보게.”흐명,

㉒ A가 B안티 “계전 산이 올랑 강 보게.”흐연,

4) 명령형

㉔ A→B: “날랑 쉼밤시크메 늘랑 몬침 강 징십 먹영 오라.”

(나는 소를 보고 있을테니까 너는 먼저 가서 점점 먹고 오너라)

C→D: ㉑ A가 Bㄴ라 “날랑 쉼 밤시크메 늘랑 몬침 강 징십 먹영

5) 본도 방언의 청유 권유를 나타내는 어미의 분포는 매우 빈약하다. /-게/가 준비관계에 관계없이 다 쓰이는데, 다만 상위자에 대해서는 첩사인 /-마썸/을 첨가시켜서 존재를 나타낸다.

오라.”^㉔형

㉓ A가 B라 “날랑 썰 받시크메 늘랑 문침 강 정심 먹영 오렌.”^㉔형여수다.

㉕ A→B: “썰 질루커진 물을 흥영 백입서.”

(소를 기르려면 물을 많이 먹이십시오)

A→C: ㉓ 나가 B안티 “썰 질루커진 물을 흥영 백입썸.”^㉔형여부난,

㉔ 나가 B안티 “썰 질루커진 물을 흥영 백입썸.”^㉔라부난,

이상의 예문에서는 주로 상위 전달동사의 분포에 중점을 두고 고찰했다. 그 결과 동사어휘 항목이 매우 제한되어 나타는데 주로 ‘글다(言)’와 ‘흥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언어 사실에서 ‘글다’와 ‘흥다’가 어휘론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II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그의 ㉓과 ㉔형의 피인용어미형들은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time-aspect)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각 항의 ㉓형들이 ‘흥멍’과 ‘흥연’ ‘흥여라’ ‘흥여수다’ 등의 미완료시상과 완료시상과 자유로이 통합⁶⁾되어 있다. 이것은 ㉓형은 전달자가 원화자의 발화체를 원형 그대로 기술한다는 자신의 발화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㉔형의 상위 전달동사들은 모두 완료시상형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㉔형이 원화자의 발화체를 원형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제는 ㉓형과 같지마는 전달자의 심적태도는 원화자의 발화체를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fact)로 인식함과 동시에 전달시 ‘현재’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거리(time interval)를 느끼고 있다⁷⁾는 가정을 할 수 있겠다.

다음에 제시되는 간접인용전달방식에서는 위와 같은 시간적 거리에 대한

6) 인용문구조를 선형구조로 보았을 때의 내포문과 상위전달문과의 선후 배열관계를 말한다.

7) 인용문의 기본 개념이 시·공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난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때, 표준어에서는 이와같은 시간개념이 모호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본도 방언에서는 ‘—」’을 시간적 거리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보고자 한다.

전달자의 심리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B. 간접인용문

이 부분에서는 A항에서 제시되었던 각 예문들이 전달자 자신의 입장에서 변형시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장어미상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남의 말이나 자신의 말을 간접인용 전달할 때의 전달자는 일반적으로 원발화체에 있는 용어나 어휘들을 비슷한 것으로 대체시키는데⁸⁾ 이러한 현상은 원본자의 발화형식보다는 발화내용(content of a speech)이 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도 방언에서는 원화자의 발화 안에 있는 인칭, 칭시, 장소들에 변화를 주는 것은 표준어와 동일하고 만일 전달자가 원화자와 원청자보다 하위자이거나 원화자가 원청자보다 하위자라고 파악될 때는 위의 사실은 그대로 수행하지만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는 그대로 A항의 ㉠형과 동일하게 발화한다.

그러기 때문에

1. 서술형

—ㄴ다→	—ㄴ	덴	} 항여라 ㄹ라라
—ㄷ네다→	—ㄷ네	덴	
—쿠다→	—쿠	덴	
—키여→	—키	엔	
—찌→	—	젠	
—주→	—	준	

8) 인칭과 시칭, 장소에 대한 어휘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영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① “My brother, Frank, who is a genius at chess, will be staying with me for a week.”(원화자=Harry)를 간접인용 전달방식으로 바꾸면

② Harry said that his brother is going to stay at his place for seven days. (화자=제 3의 전달자)에서 ①의 for a week와 staying with me가 for seven days와 stay at his place로 대체된다.

로 인용보문자 ‘-고’없이 그대로 발화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

- ① “너 어명신디 옥듣나”
 ② “너 어명안티 옥들으메” } ⇒ 간접인용

_____ 옥들은덴 ㄱ라라.

(“너어명신디 옥듣는다.”)

- ③ “어명신디 옥들언게.”
 ④ “어명신디 옥들엄시베.”
 ⑤ “어명안티 옥들엄서라.” } ⇒ 간접인용

_____ 옥들(엄)엇쩨 햏여수다.

(“옥들(엄)엇찌.”)

- ⑥ “나도 가크라” ⇒ 이녁도 가키옌 햏여라.
 간접인용

(“나도 가키여”)

에서 ①, ②의 ‘-나’ ‘-메’는 원화자가 원청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단정하는 종결어미다. 그래서 이 발화의 종결어미는 단정을 나타내는 서술형어미 ‘-다’로 모아지고 다시 ‘-ㄴ’이 결합된 형인 ‘-덴’으로 표현된다.

③, ④의 ‘-게’ ‘-베’ ‘-라’는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완료시상이나 미완료시상의 사건에 대한 확인 단언하는 서술이므로 역시 ‘-저(-찌)로 모아지고 다시 ‘-쩨’으로 표현된다. ⑥의 ‘-라’도 위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화자의 발화형식에서 문장어미들이 왜 이렇게 변화를 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제삼자인 전달자의 심적태도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즉, 언어 표현 중에서 화자의 심적태도가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서술용언에 배합되는 각각의 어미들, 특히, 선어말어미를 포함하는 문장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화자의 언어 감정에 따라서 세밀하게 표현되었던 표현형식은 전달자라는 중개자에게는 발화내용 만큼 중요하

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문장어미상의 표현형식은 전달과정에서 둔화될 수 밖에 없다,

2. 의문형

1) $A \rightarrow B$

- ① “무시거 먹올라?”
- ② “무시거 먹올티?”
- ③ “무시거 먹언다(디)?”
- ④ “무시거 먹언가?”

등의 발화가 간접인용전달될 때에는

①, ②는

⑤ A가 B라 무시거 먹으크넨 들어수다. ($C \rightarrow D$)

로, ③, ④는

⑥ 나가 B안티 무시거 먹어시넨 들어수다($A \rightarrow C$)

등과 같이 종결의문어미/—냐/에 ‘—ㄴ’이 결합된 형/—넨/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존재형인

2) $A \rightarrow B$

- ⑦ “무시거 먹으루가?”
- * ⑧ “무시거 먹얼수가?”
- ⑨ “무시거 먹음테가?”

에서 전달자 C와 A가 B보다 하위자일 경우, 또 A가 전달자가 될 경우는 /—가/가 /—겐/으로만 바뀌거나 전달자 원화자 원청자가 각각의 전달자가 될 때에는

⑩ $A <^9 B$ 일 때 $B \rightarrow C$

A가 나신디 무시거 먹으크넨 들어라.

⑪ $C < A < B$ 일때 $C \rightarrow D$

A가 B신디 무시거 먹업수겐 들어라.

⑫ $C < A = B$ 일때 $C \rightarrow D$

A가 B안티 무시거 먹어시넨 들어라.

와 같이 비존대 의문어미 /-냐/가 /-넨/으로 바뀌고, ⑪에서와 같은 모든 종결어미가 /-냐/로 대표되는 표준어와는 다소 다르다.

이런 점을 표준어 예문

⑫ A가 B에게 언제 가겠느냐고 물었다.

를 본도 방언의 가능한 간접인용형으로 바꾸면

⑫' A가 Bㄴ라 $\left\{ \begin{array}{l} \text{어느제 갈거우겐} \\ \text{어느제 가쿠겐} \end{array} \right\}$ 들어수다. (전달자 : $C < A < B$)

⑫'' A가 날ㄴ라 어느제 가크넨 들어라. (전달자 : $B < A$)

와 같이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구조에서는 내포문의 문장어미만 가지고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시간부사, 인칭의 변화, 장소의 지칭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명령형 어미의 변화도 동일한 원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 정리해 보면

1. 직접인용방식에는 ㉠형과 ㉡형의 두가지가 존재하며
2. 직접인용의 ㉡형과 간접인용의 인용문장어미가 동일하다.
3. 피인용문장어미 다음에는 인용보문자인 ‘-(이)라고’ ‘-고’가 없고 대신에 피인용문장 어미에 ‘-ㄴ’이 결합되고

9) $A < B$ 의 ‘<’는 B가 A보다 상위자임을 표시한다.

4. 이 ‘ㄴ’이 결합되면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의 일부들에 형태음소변동이 생긴다.
5. 간접인용형의 피인용문장어미상에 일어나는 표현형식상의 변화는 통사론적인 현상이 아니고 화계(speech-level)에 따른 화용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 ‘ㄴ’의 결합은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상위 전달동사의 어휘항목의 분포상의 제한현상에서 ‘하다’와 ‘글다’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ㄴ’이 결합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들에서 ‘ㄴ’을 독립된 인용보문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합된 형태 자체를 따로 인용어미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Ⅲ. 인용문의 통사론적 고찰

Ⅱ장에서 제시한 자료들에서 인용문의 구조를 형식별로 나누어 보면

A형 : 주어—“S”—전달동사 \Rightarrow 직접인용㉠

B형 : 주어—“S”+ㄴ—전달동사 \Rightarrow 직접인용㉡

C형 : 주어—S+ㄴ—전달동사 \Rightarrow 간접인용

으로 가장 단순한 A형과 ‘ㄴ’을 피인용문의 문장어미에 결합시킨 B, C형으로 구분된다.

이제 이들 각각의 형식들에 대해서 앞장에서 추출된 문제들에 입각해서 고찰해 보자.

먼저 상위 전달동사의 ‘하다’는 ‘글다(言)’의 대동사(pro-verb)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1) 영화가 가라고 말했어요 →

1)' 영화가 가렘 ᄃ라수다.

2) 영화가 가라고 했어요. →

2)' 영화가 가렘 해수다.

와 같이 '2)의 '하다'가 1)의 '말하다'의 대동사로 구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의 '하다'는 1)의 'ᄃ라수다'의 대동사로서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ᄃ다'는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의 의미자질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동사로서 존재한다.

1. A형 : 주어—"S"—전달동사

1) 나가 “난 내일 가쿠다.”햐여쭈.

2) 영화가 “어드레 감수까?”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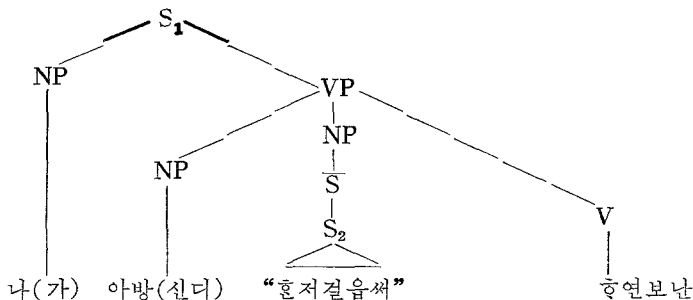
3) 나가 가이ᄃ라 “햐되 가게.”햐쿠다...

4) 나가 아방신디 “햐저 걸읍씨.”햐연보난...

1)~4)는 인용보문자없이 원화자의 발화형식이 그대로 내포된 형식이다.

이들의 상위 전달동사를 살펴보면 역시 ‘햐다’로 통일되어 있다.

이들 중 4)의 표면구조는



과 같은데, 문제는 S_2 와 V 사이의 쉼(pause)의 길이가 B·C형보다 확실히 길다는 점이다¹⁰⁾.

이러한 사실은 본도 방언 인용문의 기저구조에는 피인용문을 전달문에 내포시켜주는 요소(operator)가 이미 존재하고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A형의 기저구조를 기술하기 전에 구절구조 규칙에

$$\begin{aligned} \text{규 1) } & \text{Comp.} \rightarrow \phi \\ & \qquad \qquad \qquad \text{V} \\ \text{규 2) } & \text{끝다} \rightarrow [+ \text{speech}] \end{aligned}$$

를 설정하면 A형은

$$\begin{array}{cccccccc} & & & & & & & \text{V} \\ \text{규 3) } & \text{NP} & -\text{X} & - & \text{[“S”} & + \phi &] & \text{comp}\cdot\text{s} & - & \text{[+speech]} & - & \text{X} \\ \text{SD:} & 1 & 2 & 3 & 4 & & 5 & & 6 & & & \end{array}$$

로 표시되며 기저구조의 $-\phi$ (Zero)형태소는 추상적인 인용보문자로서 존재한다.

이 추상적인 인용보문자를 기저구조에 설정한 이유는 A형들의 발화시 내포문과 상위 전달동사 사이에 일어나는 미소한 쉼의 길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용보문자 $-\phi$ 는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구조 A형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단순한 형인 A형은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의 기저형으로 가정한다면 $-\phi$ 도 인용보문자의 기본형으로 잡을 수 있다¹¹⁾.

10) 내포문의 문장어미를 다소길게 끝면서 원차자의 발화형식을 특히 강조시킨다.

11) ① Lee (1970:132-23)는 ‘-고’를 모든 보문자의 기본형으로서 *Complementizer Placement rule*로 변형규칙에 의해서 삽입시키며 *Complementizer Placement rule*은 보문이 주어졌을 때는 필수적으로 되는 “ungoverend rule”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보문자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내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남기십(1973)은 ‘-고’를 기본으로 잡고 보문이 직접인용일 경우에는 ‘-(이)라고’가 된다고 하였다. ‘-고’는 구절구조 규칙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유도과정에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③ Yang(1972:30-60)는 ‘-고’에 한해서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남기십 교수와 유사한 이론, 즉 보문자 자체가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문의 동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절구조 규칙에 의해 주어적야 한다고 했다.

2. B형 : 주어—"S"+L-전달동사

- 1) 나가 "난 내일 가쿠펜."했쥬.
- 2) 영희가 "어드레 감수쥬?"햏여수다.
- 3) 나가 가이신디 "햏티 가쥬."햏연.
- 4) 아방은 아들ㄹ와 "강 징심 먹영 오렐."햏여수쥬

위의 예문에서 내포문의 문장어미를 분석하면 원화자의 발화문의 종결어미에서 'L'이 떨어져 나온다. 이 '—L'이 바로 '—(이)라고'에 대응되는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자가 아닌가 한다. 일단 이 '—L'을 인용보문자로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하면 A형의 인용보문자인 $-\phi$ 가 B형에서는 '—L'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을 B형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때의 환경은 1)~4)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이 모두 완료시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절구조 규칙

$$\text{규 4) 시상}(T-A) \long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완료시상} \\ \text{미완료시상} \end{array} \right\}$$

을 추가 설정한 후 이 시상에 제약을 받는 규칙(restricted rule)인

규 5)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

$$\frac{\phi \rightarrow L}{\text{comp}} \long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speech} \\ +\text{완료} \end{array} \right]$$

을 적용하면

$$\text{NP}-X-[\text{"S"}+\phi]_{\text{comp}\cdot s} - [+speech]-X$$

④ Rosenbaum(1967:24—25)는 Complementizer의 기능이란 서술보문자의 기능(a function of predicate complementation)을 하는형태소이며, 보문자는 구조 규칙에 의해서거나 변형규칙에 의해서 주거나 간에 보문자의 작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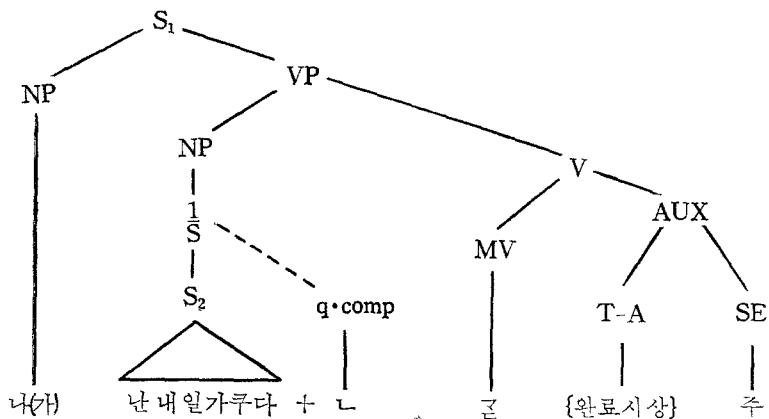
⑤ 서태룡(1979:129—30)은 절속문과 내포문의 표면구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의 공통적 통사적 기능으로 動詞句의 결합으로 기저에 이를 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SD: 1 2 3 4 5 6 → 필수적

SC: 1 2 3 4 5 — 6

조건 : 5 → [+완료]인 동사일때.

가 되어 1)의 중간 구조는



로서

1) 나가 "난 내일 가쿠다." 했었주

규 5) → 나가 "난 내일 가쿠단." 했었쥬.

를 유도해 낸다.

이 규칙 5인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은 간접인용형인 C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위 전달문의 전달 동사의 시상이 완료시상일 때에만 규칙 5)가 적용되는가에 있다.

이 규칙의 적용여부를 간접인용형인 C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¹²⁾.

- 1) { 먹읍센 홉데다.
 { 먹읍쎄 홉쎄.

12) 현용준(1979), 『濟州道巫歌資料選集』, 신구문화사에서 주로 찾았음을 밝힌다.

- 2) { 먹어시넌 들어수께.
 { 먹어시넌 들을쿠다.¹³⁾
- 3) { 갔젠 햏여라. (하더라.)
 { 갔쟁 ㄹ르라.
- 4) { 죽어블키엔 햏서라. (하고 있더라).
 { 죽어블키엔 강 ㄹ르라.

위와 같은 대립쌍들에 대해서 이 송녕(1960:341—52)은 -ㄴ이 결합된 형들은 과거적인 aspect 의미로 사용되고 -ㅇ이 결합된 형은 미래적인 aspect로 사용된 것이 “語幹+안/언”과 “語幹+양/영”의 구별이 점차 불분명해진 현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ㄴ/-ㅇ이 결합된 형은 ‘引用文의 narration의 機能’으로 보고 있으며 이 형태소 뒤에는 원칙적으로 ‘햏다’ 동사가 오며, 전자의 뒤에는 과거형이 오고 후자의 뒤에는 미래형이 온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앞의 1)~4)의 둘째 항과 같은 인용보문구조에는

$$\text{구 6) } \frac{\phi \rightarrow \circ}{\text{comp}} / \text{---} \left[\begin{array}{l} +\text{speech} \\ -\text{완료} \end{array} \right]$$

과 같은 인용자 바꾸기 규칙을 하나더 추가하여 적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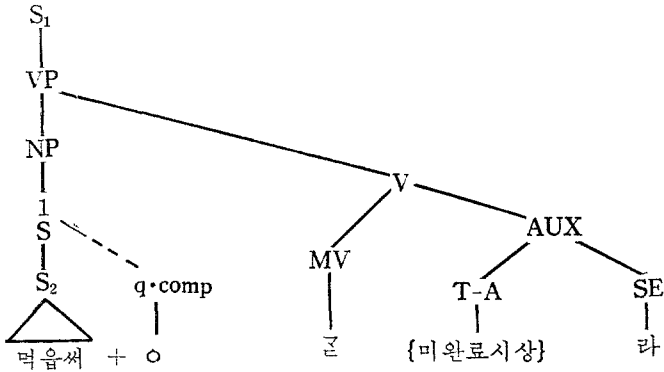
$$\text{NP-X-} [\text{“S”} + \phi]_{\text{comp.s}} - [+\text{speech}] - \text{X}$$

SD:	1	2	3	4	5	6	→필수적
SC:	1	2	3	0	5	6	

조건 : 5 → [-완료]

이 되어 1)의 중간구조는

13) 본 방언의 /-ㄱ-/은 표준어의 {-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화자의 실제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법(mood)의 범주로 처리된다. 그런데 1인칭 화자의 의지, 의도를 나타낼 때에는 화자의 발화시 ‘현재’이후에 일어나는 동작에 끼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 /-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고찰은 玄平孝(1974)을 참조할 것.



6-1) 먹음쌔 ㄱ르라¹⁴⁾

와 같이 된다.

이상에서 적용한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 5)와 6)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며 내포문의 종결어미에 결합된 $-ㄴ/-ㅇ$ 의 정체가 인용보문자임이 증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규칙 5)와 6)을 적용한 단계에서는 완전한 표면구조를 생성할 수 없다. 그래서 위의 통사규칙을 모두 적용한 후 최종 단계로서 비전설모음의 전설모음화라는 음운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text{규 7) } \begin{bmatrix} -\text{back} \\ -\text{front} \end{bmatrix} \# \rightarrow [+ \text{front}] / \text{---} \begin{Bmatrix} -\text{ㄴ} \\ -\text{ㅇ} \end{Bmatrix} \text{comp}$$

5-1): 나가 “내일 가쿠ㄴ.” ㅎ였쑤.

6-1): 먹음쌔 ㄱㄴ르라.

은 각각

5-1)': 나가 내일 가쿠ㅁ ㅎ였쑤

6-1)': 먹음쌔 ㄱㅁ르라

14) Ross에 의하면 명령문에는 미래시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므로 여기서도 [-미완료시상]으로서 명령형을 택하였다.

로 최종적인 표면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혀진 것은 ‘-ㄴ/-ㅇ’은 피인용문을 상위 전달문에 단순히 내포시켜주는 통사기능 뿐만 아니라,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에 의해서 ‘-ㄴ’ 또는, ‘-ㅇ’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내포문의 발화시가 전달문의 발화 시보다 앞서거나, 그 이후임을 지시하는 이른바 시간성 인용보문자(timed quotative complementizer)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Ⅳ. 내포문의 문장어미와 상위 전달동사특성과의 관계

내포문의 문장어미와 상위문의 전달동사의 특성과의 관계는 원화자의 발화를 C형으로 수행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B형을 C형으로 간접화시키느냐 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이다.

전자에 중점을 두고 다른 논문이 Lee (1970, 1971 a. b. 1973)인데 여기서 는 보문의 문장종결어미는 기저부의 기저규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규칙, 즉 상위문의 이행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된다고 했으며 남기십(1973)은 그 보문이 내포되기 전에 이미 서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형규칙으로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위와 같은 상충된 견해들은 본도 방언의 간접인용형인 C형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예를 들면

1) A: “나 돈이여’

직접인용 B: A가 “나 돈이엔”하더라.

간접인용 C: A가 이녀 돈이엔 ㄹ라라.

와 같이 내포문의 문장어미만으로는 B형과 C형을 구분하기 어렵다.

2) 정회가 {
 썼덴 주장해수다.
 써시덴 물어수다. ① ㄹ라수다
 쓰덴 명령해수다. ② 흥여수다
 쓰겐 제안흥여수께.

처럼 상위 전달동사를 구체적인 어휘항목으로 바꾸어 보면 오히려 어색한 감을 주지만 이들 동사들을 ①과 ②의 ‘근다’ ‘하다’의 제한된 몇개의 어휘항목으로 대치시켜보면 더욱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렇다면 이들 전달동사들과 본도 방언의 ‘근다’ ‘하다’는 어휘론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문제는 Ⅱ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근다’는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의 기저구조에 존재하는 포괄동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근다’는 모든 문형의 내포문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포문의 문장어미의 종류와 상위 전달동사간의 제약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¹⁵⁾ 하겠다.

말하자면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구조에서 내포문의 문장어미는 내포되기 이전의 문장종결어미에 상위 전달동사인 ‘근다’와 통합하면서 -ㄴ/-을 선택한다.

그런데 ‘근다(言)’가 ‘하다’로 대형태화하는 것은 구절표지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지배하고 있는 상위문의 동사가 지배받고 있는 하위문에 의해서 삭제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구조를 선적구조(linear structure)로 본다면, 삭제되거나 대형태화될 요소 앞에 동일한 의미내용의 요소가 선행하면 선행하는 요소에 의해서 후행하는 요소가 삭제 또는 대형태화될 수 있다. (김영희 : 1978, 3.5)

그래서 15세기 문헌의 자료 중

1) 釋種이 슬벗되 太子 | 出家하시면 子孫이 그츨리이다. (月印 : 其36)

2) 對答하스오되 내로이다 하습고(金剛下 : 事實 3)

을 다시 분해하면

15) 남기심(1973:36—37)에서 ‘말하다’는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묻다”같은 동사에 [+interrogative]와 같은 자질을 주는 것은 그에 의해서 보문에 의문형 종결어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문이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을때 이 자질을 가진 동사가 상위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그러므로 “묻다”동사는 이와같은 사실이 [+interrogative—]와 같은 선택제한 자질로서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설명은 본도 방언의 의문형어미와 통합하는 “듣다”에도 적용이 된다.

- 1)' 釋種이 ___ 太子이 出家ᄃᆞ시면 子孫이 이 그즈리이다 슬ᄃᆞ다.
 2)' _____ 내로이다 對答ᄃᆞ스ᄃᆞ다

로 되어 문장 구조를 선적구조로 보면 '슬ᄃᆞ다' '對答ᄃᆞ스ᄃᆞ다'에 선행하는 인용말 자체의 의미내용과 뒤에 오는 전달동사들의 의미자질이 [+speech]로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 2)'문장이 변형과정을 거쳐 1)과 2)의 문장으로 될 때 동사구, 즉 '슬ᄃᆞ다' '對答ᄃᆞ스ᄃᆞ다'가 인용어미를 형성하여 인용말 앞으로 전치(extraposition)되고 맨 뒤에 있는 빈자리를 'ᄃᆞ다'로 대치시키거나(2), 삭제시킨다(1). 본도 방언의 'ᄃᆞ다'와 'ᄃᆞ다'의 어휘론적 관계도 이와 유사한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 3) 내가 늘ᄃᆞ라 무시거ᄃᆞ ᄃᆞ라냐?
 (내가 너한테 무어라고 말했냐?)

에서 'ᄃᆞ라냐'에 선행하는 인용말에 의해서 'ᄃᆞ라냐'가

- 3)' 내가 늘ᄃᆞ라 무시거ᄃᆞ ᄃᆞ라냐.

로 대치된다.

V. 인용보문자의 문법기능

시간성 인용보문자 '—ᄃᆞ/—ᄃᆞ'은 상위문이 실현되는 담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포문의 발화시가 그 이전이라고 인식되면 '—ᄃᆞ'을 그 이후라고 인식되면 '—ᄃᆞ'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Ⅱ장 Ⅲ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결합된 '—ᄃᆞ/—ᄃᆞ'은 독립된 형태소로서 문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결어미를 인용어미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표준어의 '—(이)라고' '—고'와 같은 통사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도 방언만의 특징인 인용종결어미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다음,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에서 보았듯이 규칙적인 언어사실을 받아들이고서 자료를 수집해 보면, ‘ㄴ’의 분포가 ‘ㅇ’의 분포보다 훨씬우세하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된다.

문제는 동일한 인용보문자임에도 불구하고 ‘ㄴ’의 분포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자 한다.

인간은 경험했던 세계를 의식내부에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로 존재시킨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말이나 사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전달되어야 할 내용 등이 담화시 ‘현재’ 이미 전달자의 의식 내부에 존재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내용이나 사실을 지난것으로 의식하고 이것을 언어로 포출시킬 때는 기존의 양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다면 ‘ㄴ’의 분포가 우세함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 1) { 무시겨옴 ㄴ랍시니?
무시겨옹 ㄴ랍시니?
- 2) { 나뿌뎨 흥열져.
나뿌뎡 ㄴ랄져.

에서 상위 전달동사들의 지상은 담화시 ‘현재’ 진행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인가? 지금까지 필자는 본도방언의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 적용을 전달자의 담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전달자의 담화시가 기준이 될 것이며 1)~2)의 예들과 같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의 화자가 담화시를 ‘현재’라고 인식할 경우에도 내포문의 내용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해도 ‘현재’를 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시·공간을 공유하는 영역으로서 확대된 ‘현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ㄴ’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원화자의 발화시를 ‘동시’ 또는 담화시와 매우 ‘근접한 시·공간’으로 인식할 경우는 ‘-ㅇ’을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 3) { ㉠ 흐저 강 오ㅁ 홉서.
 ㉡ 흐저 강 오ㅁ 홉서.
- 4) { ㉢ 가쿠ㅁ 흐쿠다.
 ㉣ 가쿠ㅁ 흐쿠다.
- 5) { ㉤ 가지 싹튼 질이엔 흐민. (가기 싫은 길이라고 하면)
 ㉥ 가지 싹튼 질이엔 흐민.

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 상위문의 전달동사들의 시상을 살펴보면 담화시 현
 재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완료시상이거나 조건(가능성)이다.

그런데 인용보문자 바꾸기 규칙 5)에 의해서 ㉡문장들만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터인데 ㉢도 허락한다. 이들 사실에 대해서는 ‘발음경제’라는 요
 인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즉 발음부담량이 많은
 ‘-ㅇ (-ŋ)’ 에서 보다 부담량이 적은 ‘-ㄴ (-n)’ 으로의 이동으로 보고
 자한다¹⁶⁾.

이와 같이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자의 사용분포가 그 내면에는 규칙적인
 법칙을 깔고 있으면서도 화자들의 심적태도, 발음습관에 의해서 서로 혼용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통사론적인 설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심리적 시간이란 물리적 시간처럼 정확한 경계를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16) 이로서 담화시 기준으로 해서 지남시에 쓰이는 ‘-ㄴ’ 자리에 ‘-ㅇ’을 발음하
 는 현상도 설명이 된다. 그러나 이들 ‘-ㄴ / -ㅇ’이 오늘날 혼용된다고 해서
 이형태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서로의 문법기능이 여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구조를 통사, 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1. 본도 방언의 인용보문구조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첫째, 원화자의 발화형식을 그대로 내포시키는 직접인용 A형.
 - 둘째, 내포문의 문장어미에 시간성을 내포하는 ‘-ㄴ/—ㅇ’을 결합시키는 직접 인용 B형과 간접인용 C형.
2. 간접인용형의 경우, 내포문의 문장어미는 상대존대가 중화되지 않는다. 다만 준비관계를 전달자가 구체적으로 의식할 때에 한해서 중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사적인 제약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상위문 전달동사와 내포문의 문장어미간의 선택제약 관계는 통사론적으로 설명 할 수 있을만큼 규칙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상위 전달문에 나타나는 전달동사의 수가 표준어에 비해서 매우 제한되어 나타나며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의 자질을 모두 포괄하는 [+speech]의 ‘글다’가 기저부에 존재하며 표면구조에 흔히 나타나는 ‘흐다’는 이를 대신하는 매동사라고 할 수 있다.
5. 표준어의 ‘-(이)라고’ ‘-고’에 대응하는 요소로서 ‘-ㄴ/—ㅇ’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그 자체 내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른바, 시간성 인용보문자라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다. 다만 이 요소는 독립된 형태소로 존재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용종결어미를 형성시키면서 피인용문을 내포시켜주는 통사기능을 한다.
5. 시간성 인용자의 기본형으로 $-\phi$ (Zero) 형태소를 잡고 이를 기저부에 놓고 유도과정에서 상위 전달동사의 시상에 따라서 ‘-ㄴ/—ㅇ’이 선택

삽입된다.

6. ‘—ㄴ／—ㅇ’이 결합된 내포문의 종결어미의 일부는 전설모음화 규칙을 받는다.

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간접인용의 인칭과 시칭에 관한 통사론적 설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통사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종결어미의 수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고찰이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통사적인 측면 보다는 대화장면(discourse situation)의 참여관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아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강 정희(1978_a), "제주方言의 時相研究" 「梨花文論集」, 2 輯
 ——(1978_b) "濟州方言 接續文의 時制에 관한 考察, 「語學研究」, 14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 남 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pp.223—234.
 ——(1973) 國語 完形補文法 研究, 啓明大學韓國學研究所.
- 김 영희(1978), "삼입절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 3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金 敏洙(1974), 「國語文法論」, 一朝閣.
- 沈 在箕(1979), "{-ㄹ}動各詞의 統辭의 機能에 대하여", 「문법연구」, 4집. pp.157—74.
- 이 흥배(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
 ——(1971_a), "이행소(Performative)와 국어 변형문법", 「한글」, 147호, pp.5—53.
 ——(1971_b), 「한글」, 148호, pp.5—48.
 ——(1973), "국어의 변형생성문법에서의 문장어미", 「現代國語文法」, 南 基心(外2人), 제명대 출판부(1975).
- 李 尙馥(1974), "한국어 인용문 연구", 「언어문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31—54.
- 梁 東暉(1976)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제 1 권, 2 호, 한국언학회, pp.18—46.
- 徐 泰龍(1979), "內包와 接續", 「국어학」, 8, 국어학회, pp.109—35.
- 진 성기(1977),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 현 용준(1980), 「濟州島巫歌資料選集」 연구문화사.
- 현 영호(1974) 「濟州島方言의 定動詞 語尾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中間행).
-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Hawaii
- Fraser, Bruce(1973), *Heged Performatives*. Boston University.
- Alhen, R.L.(1966), *The Verb System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 Mouton & Co.
- Ross, J.R. (1968), "On Declarative Sentence,"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 Grammar, Jacobs & Rosenbaum (ed.), Ginn & compan cf. p]

222—61.

- Rosenbaum, P.S.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Sedock, J.M (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Academic Press.
- Searle, J. (1965) "What is a Speech Act?", *Reading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Rosenberg & Travis(eds).
- Shirô Hattori(1967), "The Sense of Sentence and The Meaning of Utterance.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Vol, II., Mouton.
- Rightner, T. (1975), "The Role of Derivational Morphology in Generative Grammar, *Language* 51.3.